

#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을 3:10a[H 4:10a])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학적 진단-

왕대일(감신대)

## 1. 문제의 제기

구약에서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라는 평화신약(사 2:4a; 미 4:3a)은 유명하다. “끝날에 이르면”(베하야 베아하리트 하야밈 והיה באחרית הימים)<sup>1)</sup> 시온(“야웨의 전의 산”, 하르베트-야웨 הרר בית יהוה)이 온 누리의 중심이 되고(사 2:2; 미 4:1),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며(사 2:3b; 미 4:2b), 시온성전에서 야웨의 신정(神

1) “끝 날에 이르면”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다양하다. “말일에”(사 2:2, 개역개정), “마지막 때에”(사 2:2, 새번역), “끝날에 이르러는”(미 4:1, 개역개정), “그 날이 오면”(미가 4:1, 새번역), “끝 날에”는 “태초에”(베레쉬트 בראשית)의 반대말로 볼 수 있다. 이 용어를 현실과 반대되는 훗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사 2장이나 미 4장의 문맥상 “베하야 베아하리트 하야밈”은 예언자의 신약을 종말의 언어로 꾸미는 구절로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은 “끝 날이 오면”보다는 “끝 날이 되면”이나 “끝 날에 이르러는”으로 읽어야 된다. 예언자들에게 종말은 “다가가는” 시간이다. 묵시사상에서 종말은 “오는” 시간이다.

政)통치가 펼쳐지게 되기에(사 2:4a; 미 4:3a),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  
가 구현되리라(사 2:4b; 미 4:3b)는 비전이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이라는 말로 구체화되었다. 이 선언을 펼침으로 이사야·미가  
는 전쟁과 전란의 폐해로 고통을 겪던 시절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구현하  
는 시대정신을 담은 예언자적 시온신학을 세웠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  
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  
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 2:4; 비교, 미 4:3).

이사야·미가의 외침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이라는 메  
시지로 요약된다. “끝 날에 이르면”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들에게 전쟁  
도구를 농기구로 바꿔둘게 하기에 전쟁 없는 평화가 이 세상에 도래하  
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사야나 미가가 서로 동일한 평화메시지를 각각  
그 입에 올리고 있다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sup>2)</sup> 그 논의의 결과  
가 무엇이든, 이사야·미가가 전쟁 없는 평화시대의 도래를 다 같이 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엘서 3장 10절[H 4:10]은 이런 예언전승에 맞선다. 요엘의 말은  
한마디로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이라는 선포로 정리된다.  
이 선포는 “그 날”에 이루어질 평화를 고대하는 이사야·미가의 종말론  
적 메시지와는 자못 거리가 멀다.

---

2) 사 2:2-4과 미 4:1-5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가가 이사야를 인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사야  
가 미가의 생각을 따랐다고 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이사야나 미가 모두 주전 8세기 유다사회가 품었던 시  
대정신을 각각 공유했다고 볼 수도 있다. Rick W. Byargeon, “The Relationship of Micah 4:1-3 and  
Isaiah 2:2-4: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Prophetic Message”,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46, no. 1 (2003), 6-26.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욘 3:10[H 4:10]).

요엘은 이사야·미가와는 정반대로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이라고 외친다. 농기구를 다듬어서 전쟁무기로 바꾸라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왜 요엘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일까? 왜 요엘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이라는 평화 종말론을 뒤집어서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이라는 전쟁 종말론을 거리낌 없이 외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성서학적 논의는 길다.<sup>3)</sup> 예컨대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이라는 요엘의 선포는 “이사야 2장 4절에 대한” 패러디(parody)로 간주되었다.<sup>4)</sup> “패러디”라는 말이 암시하듯 요엘이 소리치는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는 외침에는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꿈꾸었던 이사야·미가의 예언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던 상황에 대한 풍자나 조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요엘이 종말에, 야웨의 날에, 온 세상이 누리게 될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이사야·미가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sup>5)</sup> 그도

3) 이사야의 평화신학에 관한 작업은 많다. 그러나 그것을 요엘의 전쟁신학과 관련지어 해석한 작업은 드물다. 다음이 두 글이 이 논문의 선행연구로 두드러진다. 홍성혁, “요엘 4장의 목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야웨의 시온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구약논단』 52집(2014년 6월), 186-216; 최순진, “전쟁과 평화: ‘보습을 쳐서 칼을’ 아니면 ‘칼을 쳐서 보습을’: 이사야 2:1-5, 미가 4:1-5, 요엘 3:1-10의 성경적 해석”, 『제95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2014년 4월 25일, 대전신학대학교), 227-246. 홍성혁은 요엘서의 문학적 구조와 그 모티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요엘의 목시적 종말론을 읽어가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욘 3장(H 4장)의 케리그마를 목시사상으로 수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순진은 평화를 주창한 이사야·미가와 달리 요엘이 같은 용어를 뒤집어서 전쟁을 선포하는 발설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세 본문의 해석학적 관계를 논의한다. 그 논의 끝에 최순진은 요엘이 외치는 전쟁준비가 이사야·미가가 외쳤던 평화메시지와 그 내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욘 3장(H 4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박철우, “요엘서 4장의 구조 연구”, 『신학사상』 67집(1989년), 813-845를 참조하라.

4) J. H. Kennedy, “Joel”, *Broadman Bible Commentary* (Nashville: Broad Press, 1972), 78; 비교, Otto Kaiser, *Isaiah 1-12* (OTL, rev.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1983), 55.

5) Hans W. Wolff, “Swords into Plowshare: Misuse of a Word of Prophecy”,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12 (1985), 134.

아니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는 소리는 군사로 소집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가 담긴 격언이 될 수도 있다.<sup>6)</sup>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야·미가와 요엘이 주고받는 같은 단어, 다른 표현이란 실상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신학사상의 서로 다른 양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sup>7)</sup>

그러나 요엘 3장 10절[H 4:10]의 소리를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조롱, 풍자, 탄원, 격언, 곡해 등으로 단정하기에는 요엘이 외친 전쟁신탁의 정당성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 온 세상이 누리게 될 평화를 열렬히 소망하다가 현실역사에서 지치고 만 사람들이 보인 종말신앙의 변용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요엘 3장 10절[H 4:10]을 가리켜 이사야·미가의 평화 신탁에 대한 역설적 반응이라고 부르기에는 요엘서에 대한 해석학적 평가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요엘서에는, 그리고 그 중심사상을 표출하는 요엘 3장 10절[H 4:10]에는 예언자적 심성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던 분노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사야와 미가, 이사야·미가와 요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전승사적 관계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같은 용어를 가지고 서로 다른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던 것일까? 이 글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석학적 처방이다. 그 처방 속에서 이사야·미가의 평화신탁에 대한 요엘의 도전이 신학적으로 어떤 “무계”를 지니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

6) 여기에 대해서는 최순진, *윗글*, 241-242.

7) Irmtraud Fischer, "World peace 'holy war' – two sides of the same theological concept: 'YHWH as sole divine power' (A canonical-intertextual reading of Isaiah 2:1-5, Joel 4:9-21, and Micah 4:1-5)", *Isaiah's Vision of Peace in Biblical and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Swords into Plowshares* (New York: Macmillan, 2008), 151-165.

## 2. 요엘 3장 10a절[H 4:10a]의 언어, 요엘서의 청중

요엘 3장 10절[H 4:10]을 새기기 위해서는 요엘서의 글말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엘서의 “책의 자리”(Sitz im Buch)를 규명해야 한다.<sup>8)</sup> 요엘서는 유대교가 “테레 아샤르”(아람어 תרתי-עשר, 열둘)라고 부르는 책의 두 번째 글이다. 마소라 본문에서 요엘서는 주전 8세기 예언자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sup>9)</sup> 경전상의 배열 순위를 역사적 순서로 감안한다면 요엘서는 이스라엘·유다 왕국의 몰락기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삼게 한다.<sup>10)</sup> 그러나 12 소예언서의 배열을 꼭 연대적인 순서로만 볼 수는 없다.<sup>11)</sup> 요엘서의 “책의 자리”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런 편집기준을 숙고하게 만드는 한 예가 된다.

요엘서의 서두(1:1)는 “야웨의 말씀이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דבר-יהוה אשר היה לבר-דוּוּאל בן-בְּתוּוּאל)으로 운을 댄다. 거기에는 요엘의 연대를 일러주는 어

- 
- 8) 12 소예언서 해석은 전통적으로 각 책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규명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12 소예언서 연구는 “각 책이 최종형태의 경전에서 차지한 자리”(Sitz im Buch)가 드러내는 신학적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경철, “12예언서 연구의 최근 동향”, 『한 권으로 읽는 구약성서』(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0), 209-230을 보라.
- 9) 마소라 본문과는 달리 칠십인역에서는 열두 예언서가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다,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으로 나온다. 열두 예언서의 배열에서 문제가 되는 책은 요엘, 오바다, 요나, 말라기다. 이들은 주전 8세기(호세아, 아모스, 미가), 7세기(나훔, 하박국, 스바냐), 6세기(학개, 스가랴) 예언자들과는 달리 각각의 연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빈 A. 스위니 지음, 홍국평 옮김, 『예언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08-217을 보라.
- 10) 최순진, 『읽기』, 238.
- 11) 열두 예언서에서 연대가 드러난 책은 여섯 권(호세아, 아모스, 미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이다. 이 여섯 권은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다. 열두 예언서의 배열이 모두 다 시대 순이었다면, 요엘, 오바다, 말라기, 요나가 차례대로 맨 먼저 등장했어야 한다. 요엘서의 “여호사밧 골짜기”(욘 3:2, 12[H 4:2, 12])가 유다 왕 여호사밧(주전 873-849년)에 있었던 전쟁을 가리킨다면 그 연대는 주전 9세기가 된다. 오바다서의 오바다가 이스라엘 왕 아합(주전 869-850년)의 관료였다면 그 연대도 주전 9세기가 된다. 말라기가 다시 오기를 고대하는 예언자가 엘리야인 것을 감안하면(말 3:1; 4:5-6[H3:23-24]) 말라기서의 시대는 주전 9세기 후반일 수 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시절의 예언자였기 때문이다. 요나서의 요나를 이스라엘 왕 요아스(주전 786-746년) 때 아밋대의 아들 요나로 본다면(왕하 14:25) 요나는 주전 8세기 예언자가 된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이나 칠십인역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열두 예언서의 편집 순서에 참조하지 않았다. 스위니, 『예언서』, 210.

편 정보도 없다. 그럼에도 요엘서가 아모스서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한스 볼프(Hans W. Wolff)에 따르면, 요엘서의 마지막 장과 아모스서의 첫 장이 그 용어와 주제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예컨대 요엘서의 대미와 아모스서의 들머리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라는 구문으로 서로 연결된다(욘 3:16a[H 4:16a]와 암 1:2a). 요엘서의 말미에 거론된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욘 3:18a[H 4:18a])가 아모스서의 끝자락(암 9:13)에서 반복된다는 것도 요엘서와 아모스서의 상관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게다가 요엘이 비난하는 두로, 시돈, 블레셋, 에돔이(욘 3:4, 19[H 4:4, 19]) 아모스서 서두에 실린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선고에 고스란히 등장한다는 것도(암 1:6-8, 9-10, 11-12) 요엘서와 아모스서가 구문상 차례대로 배열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요엘서의 시대를 굳이 호세아·아모스와 동시대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럼에도 요엘서의 글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청중을 짐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엘서에는 왕이 나오지 않는다. 사마리아도 언급되지 않는다. 요엘서에서 부각되는 상황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하고 성전 제사장이 그 주역으로 활약하는 모습이다(욘 1:9, 13-14, 16; 2:17; 3:18[H 4:18]). 요엘서에서 성전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물과 제물이 동나고 떨어졌기에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있다. 성전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소제”(민하 מִנְחָה)와 “전제”(네세크 נֶסֶךְ)뿐이다. 성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욘 1:16).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금식선포와 탄원뿐이다(욘 2:15-17).

요엘서 1-2장은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던 농부들

12) Hans W. Wolff, *Joel and Amos, Hermeneia—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1977), 3.

의 생존을 고발한다. 요엘은 그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모습을 두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용사들”(욘 2:7, 9)이라고 묘사하였다.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 말고도 성벽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암시이다. 이런 정황에 더하여 요엘서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한 부류로 묶어서 비난한다(욘 3:4[H 4:4]). 스바 사람이냐(욘 3:8[H 4:8]) 애굽, 에돔도 저주받을 이방인으로 꾸짖는다(욘 3:19[H 4:19]). 그러면서도 정작 아람, 앗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여기에는 두가능성이 있다. 요엘의 청중이 아직 포로살이를 겪지 않았을 때이거나,<sup>13)</sup> 아니면 왕국의 패망과 포로살이의 아픔을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요엘서의 정황이 늦은 포로후기 시대일 수 있다.<sup>14)</sup>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요엘서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사실이다(욘 3:6[H 4:6]). 왜 그랬을까?

요엘서는 그 분량이 짧막하다. 모두 합쳐 세 장(73절)에 지나지 않는다.<sup>15)</sup> 그런데 그 많지 않은 분량 속에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못 예언자들이 쏟아놓았던 용어들에 참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sup>16)</sup> 우선 요엘 1-2장이 묘사하는 메뚜기 떼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온 재앙을 떠올리게 한다(출 10:1-20, 21-29). 다가오는 아웨의 날은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요엘 1장 15절은 이사야, 에스겔이 한 말이다(사 13:6; 겔 30:2-3).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욘 3:16[H 4:16])는 요엘의 말은 아모스 1장 2절과 평행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씻

13) Douglas Stuart, *Hosea-Jonah*, Word Biblical Commentary 31 (Texas, Waco: Word Books, 1987), 224-226.

14) Wolff, *Joel and Amos*, 77. 볼프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보복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전 4세기 중반 페니키아와 블레셋이 독자적 정치공동체였던 페르시아 시절을 암시한다고 본다.

15) 우리말 본문과는 달리 히브리어 본문에서 요엘서는 모두 4장(73절)으로 구성된다. 우리말 욘 2:28-32는 히브리어 본문의 3:1-5이고, 우리말 3:1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4:1이 된다.

16) 스워니, 『예언서』, 226.

덤 골짜기에 대리라”(욘 3:18[H 4:18])는 요엘의 선포도 아모스의 말과 겹친다(암 9:13). 야웨의 날이 코앞에 닥쳤으며 그 날은 무섭고도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요엘의 선포도(욘 2:1-2) 스바냐 1장 14-15절과 평행한다. 요엘 3장 1절(H 4:1)의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라는 구절은 예레미야 30장 3절을 인용한 결과다(비교, 렘 33:15; 50:4, 20). 요엘서에는 역대기 기사를 떠올리게 하는 글도 거론되고 있다. 여호사밧 골짜기(욘 3:2, 12[H 4:2, 12])에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문/심판하시리라는 요엘의 언급은 역대하 20장 20-26절을 상기시킨다. 그 외에도 요엘서에서는 나훔, 요나, 오바댜, 말라기의 목소리도 들린다.<sup>17)</sup>

이처럼 요엘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스바냐, 말라기, 역대기 등의 구절이 거론되거나 인용되거나 평행하거나 재해석되고 있다. 요엘의 글쓰기는, 피스베인(M. Fishbane)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옛 전승을 “자기 시대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작업”(aggadic exegesis)이다.<sup>18)</sup> 옛 전승을, 선배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자기 시대, 자기 상황에 맞춰 재구성(re-actualization)했다는 소리다. 요엘서의 글말은 그만큼 늦은 시대의 것이다. 요엘 3장 10절(H 4:10)에서 역(逆)으로 들리는 이사야 2장 4절이나 미가 4장 3절의 소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욘 3:10[H 4:10])는 요엘의 주문은 이사야·미가의 평화신탁을 자기 콘텍스트에서 점검한 “다시 읽기”의 결과다. 요엘이 당면한 암울했던 시대적 과제 가 옛 예언전승을 되새기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7) 욘 2:6 = 나 2:10[히 2:11], 욘 2:14; 4:2 = 은 3:9, 욘 2:11; 4:5[히 3:23] = 말 3:2, 욘 3:19[히 4:19] = 욘 10.  
 18)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 365, 371, 412-413, 479, 529; 비교, 스위니, “예언서”, 226; Claude F. Mariottini, “Joel 3:10[H 4:10]: ‘Beat your plowshares into Swords’”,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14 no. 2 (1987), 126.



요엘서는 “시온에 거하시느/거하실 하나님”을 명료하게 가르친다(욘 2:27; 3:21[H 4:21]). 하지만 그 시대적 정황을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순전히 독자의 몫으로 남기고 있다. 이를 테면 답답했던 제2성전기의 페르시아 시대가 저물고 악명 높은 헬라 통치가 부상하던 시기(주전 5세기 중반-4세기 중반)를 요엘서 독해의 배경으로 삼는다면 요엘이 외친 메뚜기 떼의 재앙이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는 선동이 우리 귀에 제대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다.<sup>19)</sup> 요엘 3장 10절(H 4:10)이 이사야·미가의 평화신탁을 재해석하게 되었던 까닭도 이런 정황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요엘에게는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리라”는 이사야·미가의 평화신탁을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라는 전쟁명령으로 바꾸어서 외쳐야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 3. 요엘 3장 10a절(H 4:10a)의 맥락, 아웨의 날

요엘 3장 10절(H 4:10)은 요엘서의 주제인 아웨의 날을 배경으로 읽어야 한다.<sup>20)</sup> 요엘서는 “아웨의 날”(욘 아웨 יוֹם יְאוּוֹ)을 선포하는 책이다(욘 1:15; 2:1, 11, 31[H 3:4]; 3:14 [H 4:14], 비교, 3:1, 18[H 4:1, 18]). 이 “아웨의 날”을 중심으로 요엘서는 크게 둘로 구분된다.<sup>21)</sup> 하나는 아웨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경고이고(욘 1:1-2:32[H 3:5]), 다른 하

19) Wolff, *Joel and Amos*, 4-5, 76-78.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된 해는 주전 515년이고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구축한 때는 주전 445년이다. 볼프는 이 시기를 요엘서 연대의 상한선(*terminus post quem*)으로 볼 때 하한선(*terminus ante quem*)은 두로와 블레셋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한 해(주전 332년)가 된다고 본다.

20) “아웨의 날”이 12 소예언서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된다는 해석은 렌토르프(R. Rendtorff)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요엘에게 “아웨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심판 뒤에 구원이 실현되는 날이다. 그 때아웨께서 시온에 영원히 계시게 되리라”(욘 3: 21). 박경철, *욘*, 227.

21) 비교, 홍성혁, *욘*, 193-195.

나는 야웨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다(을 3:1-21[H 4:1-21]).<sup>22)</sup> 전자는 시종일관 “야웨의 날”을 내세우고, 후자는 “그 날”(바야밈 하렘마 בַּיּוֹם הַהוּא, 을 3:1[H 4:1], 바욘 하후 בַּיּוֹם הַהוּא, 을 3:18[H 4:18])과 “야웨의 날”(을 3:14[H 4:14])을 번갈아 사용한다. 요엘 3장 1절(H 4:1)의 첫 구문 “보라”(כי הנה כִּי הִנֵּה)가 전자의 야웨의 날을 “그 날”로 변환시키는 돌쩌귀 역할을 한다. 전자가 예루살렘이 당한 재난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예루살렘이 장차 얻을 구원을 힘주어 말한다.<sup>23)</sup> 전자에서 예루살렘이 당하는 재난은 메뚜기 떼 재앙이다(을 1:4; 2:25). 이 재앙과 관련된 통곡과 경고, 회개와 희망이 요엘서 전반부의 소재라면, 후반부에서 예루살렘이 지켜볼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사밧 골짜기/심판의 골짜기”에서 일어난다(을 3:2, 12, 14 [H 4:2, 12, 14]). 전자는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도구(큰 군대, 헤일리 학가돌 הַיְלִי הַגָּדוֹל)로 부각시키고(을 2:25), 후자는 여호사밧 골짜기를 하나님의 심문·심판이 선고되는 법정으로 묘사한다.<sup>24)</sup>

요엘 3장 10절의 앞뒤 문맥은 모든 민족을 향해 전쟁에 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로 수렴된다(을 3:9-13[H 4:9-13]). “그 날”에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를 힘써 모으라고 열방을 부추기고 있다. 밭가는 농부들까지도 군사로 동원하라고 주문한다. 농부들의 농기구까지도 전쟁무기로 다듬어보라고 선동한다. 이런 외침은 그 어구와 표현에서 요엘 2장 1-11절에 묘사된 메뚜기 군대와 짝을 이루고, 메뚜기 군대는 다시 요엘 2장 20절의 “북쪽 군대”와 짝을 이룬다.<sup>25)</sup>

요엘서의 청중은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극심한 재해에 시달리고 있

22) 요엘서의 문학적 구조는 둘로 보기도 하고(을 1:1-2:27과 2:28-4:21 [H 3:1-4:21]), 셋으로 보기도 하며(을 1:1-2:27; 2:28-3:2 [H 3:1-5]; 4:1-21). 을 2:18-20을 기준으로 그 앞의 역사적 서술과 그 뒤의 묵시적 서술이 상호 대칭적으로 어우러진 하나의 글로 보기도 한다. 홍성혁, *원고*, 187-195.

23) 비교, Stuart, *Hosea-Jonah*, 226.

24) 비교, 홍성혁, *원고*, 187.

25) Stuart, *Hosea-Jonah*, 266; 홍성혁, *원고*, 193-195.

다(욥 1:2-2:11). 요엘서의 농부들은 메뚜기 떼 재앙 탓에 그들의 밭이 황폐해졌고 곡식이 떨어졌으며 포도나무를 비롯한 각종 과수들이 다시들고 말라버렸다고 울부짖는다.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욥 1:4; 비교, 2:25).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욥 2:3).

요엘이 진단하는 현실은 처참하다.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렸다. 요엘이 그 입에 올리는 “팔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메뚜기 떼의 종류인지, 아니면, 메뚜기의 성장과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sup>26)</sup> 분명한 것은 요엘서의 메뚜기는 새까맣게 떼를 지어 날아와 온갖 작물들을 다 갉아먹어 쳐버린다는 점이다. 이 메뚜기 떼는 고대 이스라엘이 겪었던 자연재해를 반영한 현실일 수 있다.<sup>27)</sup> 계절이 바뀌면서 사막지대에서 불어 닥치는 뜨거운 바람이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엄청난 양의 모래와 먼지를 가져다가 온 땅을 뒤덮어버림으로 낮에는 사방이 어둡게 되고 밤에는 달빛도 붉은색으로 비치는 경험을 하였다. 어쩌면 요엘서의 메뚜기 떼 재앙은 이런 자연재해를 반영한 역사적 현실일 수 있다.<sup>28)</sup>

26) “팔중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짐(גַּזִּים)”은 메뚜기의 일종이다. 우리말 새번역은 이 말을 “풀무치”로 옮겼다. 욥 1:4에 소개된 네 곤충(풀무치, 메뚜기, 느치, 황충)은, 새번역의 욥 1:4 난하주가 밝히듯이 메뚜기의 종류를 언급한 것인지, 메뚜기의 성장과정을 언급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27) 스워니, 『예언서』, 226-227.

28) 윌클, 227.

하지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요엘서에서 메뚜기 떼 재앙은 야웨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종말론적 경고로 대두되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매 년 겪어야 했던 자연재해이기보다는 한 번 밖에 없는 야웨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이정표가 된다(욘 2:1-2). 이 경고를 놓고 우리말 성경은 서로 다르게 번역해 놓았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욘 2:2, 개역개정).

그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 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욘 2:2, 새번역).

우리말 개역개정의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는 구절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그냥 “많고 강한 백성”(암 라브 베아춤 עם רב ועצום)이다. 그런데 이 “암 라브 베아춤”을 새번역은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라고 옮겨놓았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요엘 2장 3-11절이 묘사하는 “그들”의 동작에서 얻을 수 있다. 그들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는 황폐한 사막이 되어 버린다(욘 2:3). 그들은 떼 지어 몰려오고, 떼 지어 공격하고, 떼 지어 기어오르고, 떼 지어 들어가고, 떼 지어 뛰어넘고, 떼 지어 쳐들어간다(욘 2:4-9). 그 떼가 움직이면 땅이 진동하게 되고, 온 하늘이 캄캄해진다(욘 2:10). “그들”이 무리지어 급습하면 사람들의 표정은 자지러지고, 그 얼굴빛은 하얗게 질리게 된다(욘 2:6). 이 “그들”을 가리켜 요엘 2장 2절은 “암 라브 베아춤”(“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불렀다. 이 구절을 새번역은 맥락에 따라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라고 풀어놓았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케마르에 수심 마르에후 כַּמְרָאָה כּוֹסִים מְרָאָה)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우케과 라쉽 켄 예루춘 כֵּן יִרְוִיחוּ וּכְפָרָשִׁים)”라고 하면서 메뚜기 떼의 생김새와 행동거지가 ‘말 타고 달리는 군대와 비슷하다’고 덧붙이고 있다(욥 2:4).

물론 요엘 2장 2절 이하의 “그들”이 메뚜기 떼를 군대로 묘사하는 표현인지, 군대를 메뚜기 떼처럼 묘사한 은유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그들”을 명시적으로 메뚜기 군대로 번역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기 “그들”은 군대처럼 묘사된 메뚜기 떼로 읽어야 한다.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하지 않았는가(욥 1:4; 참조 2:25)!

요엘서에서 야웨의 날은 대재앙과 함께 온다. 요엘 1-2장이 고발하는 메뚜기 떼 재앙은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재해라기보다는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야웨의 날에 대한 경고다. 요엘서의 후반부(욥 3:1-21 [H 4:1-21])는 바로 이 경고를 전제로 읽어야 한다. 요엘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3장 1절(H 4:1)이 전반부에서 강조되었던 야웨의 날을 “그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메뚜기 떼 재앙으로 경고하였던 야웨의 날은, “그 날”에 가서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전쟁을 맞게 된다.<sup>29)</sup>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전쟁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에서는 온 누리를 심판하는 수단이 된다(욥 3:1-13 [H 4:1-13]). 다른 한편에서는 야웨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욥 3:16-17, 20-21 [H 4:16-17, 20-21; 참

29) 흔히 요엘서가 거론하는 전쟁 이야기를 “거룩한 전쟁”(holy war)의 일환으로 본다. 종말의 날에 대재앙을 일으키는 세력을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진압하시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보습을 쳐서 창을, 낫을 쳐서 칼을 만들라”는 욥 3:10의 전쟁선포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 사람들을 무장전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본문에 전쟁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은 야웨의 날의 도래가 불러일으키는 종말론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비교. Seung Ho Bang, “For whom the plowshares and pruning hooks toil: a tradition-historical reading of Joel 4:10”, *Journal for the Study of Old Testament*, 39, no. 4(2015), 489-512.

조, 2:23, 27, 32[H 3:5]), 즉 시온으로 피신한 자에게는(욥 3:16-17[H 4:16-17]; 참조, 2:23-26) 구원을 베푸는 통로가 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게 되리라(욥 2:28-29[H 3:1-2]).

구약의 예언자들은 역사를 구원사(history of salvation)로 읽는다.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새긴다. 이 점은 요엘도 마찬가지다. 출애굽기가 관심하던 역사는 구원사의 들머리다. 이 구원사의 서막에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의 승리가 소개되었다. 출애굽기 15장에 수록된 모세의 노래나 미리암의 노래가 “용사이신 하나님”(Divine Warrior)을 구원사의 서막에서 당차게 선포하였다. 이에 비해 예언자들이 관심하는 역사는 구원사의 종장이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이다. 그 구원사의 종언(終焉)에도 하나님의 전쟁이 등장한다. 온 누리가 경험할 역사의 종말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사의 성취로 보게 한다.

요엘서 후반부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야웨의 날 전쟁기사(욥 3:9-13[H 4:9-13])는 그 전반부에 소개되었던 초역사적인 재앙(욥 2:1-11) 장면과 겹쳐서 읽어야 한다. “그 날”은 멸망의 날이다(욥 1:15). 이 땅 주민들이 두려워 떠는 날이다(욥 2:1). 심히 두려운 날이다(욥 2:11). 심판 골짜기에 악인들이 가득 찰 날이다(욥 3:14[H 4:14]). 그러나 그 전조를 보고 야웨께 돌아와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욥 2:32[H 3:5]).

요엘서의 종말론은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전쟁을 기대한다. 출애굽 당시 용사이셨던 하나님이 현 역사가 종언하는 시기에 또 다시 용사가 되어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리라고 고대한다.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 세상은, 하늘과 땅은, 현존하던 생태계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대재앙을 맛보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전쟁은, 본질적으로는 온 누리를 향한 심판의 색채를 띠게 된다. 그러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도성으로 피신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습을 쳐서 칼

을, 낮을 쳐서 창을”이라는 요엘 3장 10절의 전쟁 모티프는 열방을 향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못 민족들이 한 번 맞서보라고 외쳐대는 예언자적 종말론에 잘 어울린다.

#### 4. 요엘 3장 10a절(H 4:10a)의 모티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전투

요엘 3장 10절(H 4:10)은 전쟁신탁에 속한다. 전쟁에 대비하라는 주문이다. 전쟁에 대비하여 용사를, 병사를 모으라는 선포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요엘 3장 10절(H 4:10)이 선포되는 “말의 자리”(을 3:9-13[H 4:9-13])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글의 앞뒤에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문/심판이 예고된다. 유다 땅에 대한, 유다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열국의 횡포를 하나님이 보복하시려고 단단히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을 3:1-8, 14-17[H 4:1-8, 14-17]).

요엘 3장 9-13절(H 4:9-13)은 명령문이다. 이 본문은 크게 둘로 구성된다. 하나는 명령의 위임을 소개하는 서두고(9a절), 다른 하나는 위임된 명령의 내용을 전하는 본론이다(9b-13절). 이 본문은 “널리 선포하라”는 지시(9a)와 그 널리 선포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있다(9b-13). 우리말 개역개정 요엘 3장 9a절(H 4:9a)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라고 옮겼지만, 정확히는 “선포하라 이것을 민족들 사이에서”(키르우-쫘트 바고임 בניים קראוֹרֵאֵת בְּגוֹיִם)로 읽어야 한다. ‘모든 민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라’기보다는 ‘민족들 사이에서’(바고임 בניים) 이것을 선포하라’로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청중은 “민족들”(고임 גוֹיִם)이다. 민족들 사이에서 “이것”(쫘트 אֵת)이, 곧 전쟁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쟁이 곧 터진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전쟁소식에

은 우리가 점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명령의 내용, 곧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점차 퍼져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을 3:9b-13[H 4:9b-13]) 하나님이 열방을 전쟁터로 부르시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첫 마디가 바로 “전쟁을 준비하라”(카드슈 밀하마 מלחמה מלחמה 9b)이다. 이 “전쟁을 준비하라”(카드슈 밀하마)는 소리는 자못 역설적이다. “카드슈(피엘 형) 밀하마”는, 문자적으로는, “전쟁에 헌신하라”다. 읽기에 따라서는 “거룩한 전쟁(holy war)을 준비하라”로도 볼 수 있다.<sup>30)</sup> 그러나 요엘 3장 9b절(H 4:9b)이하에서 이 명령을 듣는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에서 전쟁준비에 나서야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에게 전쟁을 부추기는 선동은 이스라엘 예언전승에서도 낯설지 않다(참조, 사 8:9-10; 렘 46:3-6, 9-10; 겔 38:3-7).<sup>31)</sup> 이 말은, 그 뿌리말인 “카드슈”(קדש)가 기본적으로는 구별된 것을 가리킨다는 점을 전제하면, 전쟁터에 나서는 민족들이 얼마만큼 전쟁에 몰두해야 하는 지를 지시하는 어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상과 철저히 구별되는 전사체제를 갖추라는 지시다. 못 민족은 그만큼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전쟁을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에 대비하라는 선포(을 3:9b-13[H 4:9b-13])는 그 글말의 형식과 글감에서 아홉 개의 소 단락으로 구분된다(9b, 10a, 10b, 11a, 11b, 12a, 12b, 13a, 13b절). 이 소 단락 아홉 개는 12a절을 사이에 두고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구(對句)를 이룬다. 신탁의 서두는 전쟁에 대비해서 전쟁터로 급히 나서는 용사(גיבורים גיבורים)들을 소개한다(9b절). 그들은 용사라고 불리지만, 그 성품은 악하다(을 3:13b[H

30) 볼프는 이것을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라”(Prepare for a holy war)나 “전쟁을 거룩하게 하라”(sanctify a war)로 읽는다(Wolff, *Joel and Amos*, 72). 그러나 이 말은 “전쟁준비를 종교적으로 하라”(Prepare yourselves religiously for a war)로 읽는 것이 적당하다(Stuart, *Hosea-Jonah*, 263, 268). 렘 6:4에도 비슷한 표현이 사용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31) Wolff, *Joel and Amos*, 80.



4:13b]). 그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할 무기는 농사꾼들의 도구다. 농사꾼들의 일용도구인 보습과 낫을 각각 칼과 창으로 다듬어서 전쟁에 참여하여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시급하다(을 3:10a[H 4:10a]). 이 구절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을 3:13a[H 4:13a])와 짝을 이룬다. 이 대구(10a, 13a)는 열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 농부가 “포도주 독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격렬하고 치열하다는 것을 연상시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복이 선흥빛 핏자국으로 더럽혀지는 모습이 배여 있다(참조, 사 63:1-6).<sup>32)</sup>

이 때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는 선포 뒤에 삽입된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을 3:10b[H 4:10b])라는 구절은 문장의 흐름을 끊기게 한다. 이 구절은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을 3:9b[H 4:9b])에 이어져 있어야 한다. 종군병사들을 소집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을 3:10b[H 4:10b])은 본문의 구성에서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을 3:12b[H 4:12b])에 상응하는 대구(對句)가 된다. 요엘 3장이 선포하는 전쟁터에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다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모두가 다 전쟁터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약하다고 열외될 수 없다. 약한 자도 전쟁터에 소집되어야 할 정도로 본문의 분위기는 두렵고 심각하다. 이 두려운 분위기는 요엘 3장 12b절(H 4:12b)에서도 반복된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앉아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심판자로, 왕으로 전쟁터를 주관하고 계신다.

본문은 사방의 민족들에게 전쟁터에 속히 모이라고 외친다(을

32) 윗글, 81.

3:11a[H 4:11a]). 사방의 민족들이 모이는 전쟁터는 어디인가? 그 곳은 여호사밧 골짜기다(율 3:12a[H 4:12a]). 사방의 민족들은 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야 한다. 그곳이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사방 민족들이 몰려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 골짜기로 내려오 시게 된다. 온 누리를 향해 선포하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바로 이 대목 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으로 바뀐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율 3:11b[H4:11b]). 열국의 병사들은 전쟁 터인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용사들은 그 전쟁터인 여 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고! 이상을 종합할 때 요엘 3장 9b-13절(H 4:9b-13)은 동심원구조(concentric structure)를 이룬다.

- A. 9b절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 B. 10a절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 C. 10b절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 D. 11a절 (“사면의 민족들이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 X 11b절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 D’ 12a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 C’ 12b절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 B’ 13a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 A’ 13b절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요엘 3장 9b-13절(H 4:9b-13)의 분위기는 심각하다. 악한 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힘과 세(勢)를 과시하고 있다(A와 A’, 9b와 13b). 전쟁 “용사들”(A, 9b)은 하나같이 다 “죄인들”이다(A’, 13b). 낫을 들고 일 하는 포도밭의 농부들까지 군인으로 나설 정도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 다(B와 B’, 10a와 13a). 그 전쟁에는 모두가 다 참여하여야 한다. 병약 한 자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되뇌면서

참여하여야 한다(C, 10b). 이 전쟁에 나서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약한 자라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C', 12b).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들이다. 이 전쟁의 분위기가 긴박한 것은 사방의 민족들에게 속히 모이라고 외치기 때문이다(D와 D', 11a와 12a).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두 다 올라오라고 다급하게 부르기 때문이다. 요엘은 바로 이 전쟁터(여호사밧 골짜기)로 용사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를 간청한다(X, 11b). 하나님이 주님의 군대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보내주시기를 청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엘 3장 9-13절(H 4:9-13)이 포고(布告)하는 전쟁터가 여호사밧 골짜기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열국의 전사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심판하는 현장은 여호사밧 골짜기다. 열방의 군대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요엘 3장(H 4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문/심판이 행해지는 곳이다(을 3:2,11[H 4:2, 11]; 참조, 을 3:14[H 4:14]). 그런데 왜 여호사밧 골짜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하나는 “여호사밧”란 이름에 히브리어 “사밧/샤파트”(שבט)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sup>33)</sup> 히브리어 “사밧/샤파트”는 “재판하다,” “벌을 주다”는 뜻이다. 열국의 군대가 찾아들 곳은 다름 아닌 심판의 골짜기라는 것이다(을 3:14[H 4:14]). 다른 하나는 과거 역대기 기자가 증언했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승리를 요엘서 기자가 자기 의도에 맞춰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대하 20: 20-30).

역대하 20장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 시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무리지어 사해를 건너와 유다 백성을 치고자 벌인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너

33) 윗글, 80.

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하나님의 응답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서 찬송하면서 침략자들과 맞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대하 20:22-23). 유다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로 얻게 된 물자들을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대하 20:26)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요엘이 거론하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를 가리킨다.<sup>34)</sup> 여호사밧 왕 때의 드고아 들(대하 20:20)/브라가 골짜기(에메크 브라카, עמק ברכה, 대하 20:26)가 “그 날”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골짜기”(에메크 헤하루츠, עמק ההרוץ, 욥 3:14[H 4:14])가 되리라는 것이다. 요엘 3장9-13절(H 4:9-13)의 예언은 역대기 기자가 증언했던 브라가 골짜기 사건에 대한 재구성일 수 있다. 역대기 기자가 해석하였던 브라가 골짜기의 승전을 풀어서 예언자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승전을 안긴 그 날, 열국에게는 커다란 패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요엘에게 여호사밧 골짜기는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법정이다. 종말에 터질 전쟁의 현장이다. 종말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곳이고, 열국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곳이다. 요엘에게 여호사밧 골짜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꿔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터이다. 그 날, 그 곳에서 승리와 심판의 변주가 엇갈리게 되리라. 열국의 군사들이 아무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하나님께 대들어도 그들의 기세는 허세가 되리라. 오늘 유다를 꺾박하는 열국백성들의 힘자랑이 아무리 거세고 드세더라도 그 날 열국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호된 매를

34) 스위니, 『예언서』, 229.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기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 올라오라는 요엘의 선동은 종말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고가 된다.

## 5. 맺음말, 요엘 3장 10a절(H 4:10a)의 의도-요엘서의 묵시사상

요엘이 외치는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이라는 소리는 야웨의 날에 있을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일깨워주는 종말론적인 선포다. 거기에는 종말에 이루어질 악의 패배와 그 날에 있을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초기 묵시사상(proto-apocalypticism)이 담겨있다.<sup>35)</sup> 열방에 대한 심판이, 그 심판이 가져올 시온의 회복이, 그 회복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통치가 현 역사에서가 아닌, 현 역사 저 너머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요엘도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이라는 이사야·미가의 평화 메시지를 전승사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요엘은 그 소망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 없었다. 요엘이 이사야·미가의 평화신약을 전쟁신약으로 반전(反轉)시킨 까닭은 역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하던 사조에 크게 절망하였기 때문이다. 요엘이 선포하는 반(反) 평화신약은 종말을 역사의 완성으로 보던 낙관적 기대가 비관적 좌절로 돌변하는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유다왕국 사회는 주전 8세기 이래 평화시대의 도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주전 8세기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던 때였다. 당시 유다사회는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기원전 735-734년) -> 앗시리아 왕 티글랏 필레셀(Tiglath Pileser III)의 아람과 이스라엘 침공(기원전 734/732년) -> 앗시리아의 사마

---

35) Mariottini, "Beat your plowshares into swords", 128-130; Stephen L. Cook, *Prophecy and Apocalypticism: The Postexilic Social Setting* (Minneapolis: Fortress, 1995), 167-210; 비교, Byargeon, "The Relationship of Micah 4:1-3 and Isaiah 2:2-4", 23. 이 점은 스투아트도 지적한다. Stuart, *Hosea-Jonah*, 225, 227.

리아 함락 (기원전 722/1년) -> 앗시리아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기원전 701년)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전쟁으로 초토화되는 아픔을 겪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토록 끔찍했던 진란의 와중에서도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었다는 사실이다. 수차례 거듭되는 외적의 침입에서 예루살렘 도성은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았다. 이런 일련의 사실이 유다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에 하나님이 그 도성의 함락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신념을 불들게 하였다(참조, 시 78:65-69). 이사야의 평화신탁(사 2:4)은 이런 시대적 신념을 반영한 전승에 속한다. 그 이면에는 유다의 외적들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훈계하시고자 들어 쓰신 도구였다는 확신이 도사리고 있다. 이사야에게 앗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이다(사 10:5). 이사야에게 앗시리아는, 애굽과 더불어 “그 날에” 하나님을 경배할 백성에 속한다(사 19:23-24). 이 같은 시각은 바벨론 포로기의 이사야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주님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사 45:1).<sup>36)</sup> 이런 토양에서 이사야는 장차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못 백성들이 시온으로 향한 순례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기대를 한껏 고취시켰다. “그 날”에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리라”는 비전에는 예루살렘의 미래에 관한 낙관주의적 기대감이 깔려 있다.<sup>37)</sup>

이 점에서 모레셋 사람 미가는 이사야와 다르다.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도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미 4:3)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공유한다. 그러나 미가는 유다 왕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이

36) 스위니, 『예언서』, 216.

37) 스위니는 이와 다르게 이사야의 평화신탁을 이사야서가 최종 편집되던 에스라-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읽는다.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들고 시온에서 아웨의 토라가 울려 퍼지는 이사야의 청사진은 에스라-느헤미야의 개혁을 지지하려는 의도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Marvin Sweeney, "The Book of Isaiah as Prophetic Torah", Roy F. Melugin and Marvin A. Sweeney (eds.), *New Visions of Isaiah*, JSOTSup 21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6), 50-67.

사야에 비해 모레셋 땅의 농사꾼 출신이었다. 모레셋 땅은 산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훑고 지나간 전쟁터이었다. 미가는 외적의 침입으로 땅을 빼앗긴 농부의 아픔을 안다. 미가는 열방의 제국주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미가가 겪은 전란과 피난살이는 유다 땅의 침략자들에 대한 인식을 이사야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다듬게 하였다.<sup>38)</sup> 그래서 미가는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이라는 평화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전쟁이 종식되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미 4:5a) 길로 돌아서고야 말 것이라고 꼬집는다. 거기에는 미가가 느끼는 현실인식이 이사야와 다르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그런 인식이 "그 날에" 아웨게서 이루실 평화를 조망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다짐하게 된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미 4:5b). 미래를 조망하는 미가의 현실주의적 인식은 여기에 자리 잡았다.

이에 맞서 요엘 3장 9-13절(H 4:9-13)은 "보습을 쳐서 칼을"이라는 주제로 정리되는 신탁을 선포한다. 이 신탁은 단연 현실역사에 대한 비판적 판단을 대변한다.<sup>39)</sup> 요엘에게 있어서 왕국시대나 포로시대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왕국은 사라져버리고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뿐이다. 한 때 이사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등은 성전재건 함께 유다공동체의 장래가 희망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조망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지(주전 515년) 오래 되었어도, 열방의 부침이 페르시아에서 헬라족속에게로 이월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요엘은 과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되새겨보았다. 옛날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38) Byargeon, "The Relationship of Micah 4:1-3 and Isaish 2:2-4", 24-25.

39) 비교, 홍성혁, *뫼글*, 207-210.

말씀의 정당성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서 요엘은 하나님께서 현역사 속에 돌진해 들어오셔야만 어두운 세력들이 지배하는 현실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고 깨달았다.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의 악한 세력들을 깨부수신 뒤에야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주권이 “그 날”에 이 땅 위에 수립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sup>40)</sup> 그것이 바로 요엘 3장 9-13절 (H 4:9-13)이 전하는 소식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열방 세력이 사람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메뚜기 떼 재앙(을 2:1-11)이나 북쪽 군대(을 2:20)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덤벼드는 모습은 온 하늘과 땅을 캄캄하게 뒤덮은 메뚜기 떼 재앙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자들은 “한 번 지나고 나면 황량한 사막”을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와도 같다. 요엘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역사적 재앙을 “묵시적 종말론의 모티프”로 활용하고 있다.<sup>41)</sup>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눌렀던 악한 세력들은 이제 다 심판받아야 한다. 아웨의 날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설치는 역사의 흐름을 “단”(斷)하고 난 뒤에야 열린다.

요엘의 기대는 초역사적인 종말이 도래하는 것이다. 역사의 끝에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은 악이 하나님과 맞서 벌이는 전쟁이다. 요엘은 그런 악한 존재의 위상과 세력을 “달리고, 기어오르고, 돌파하고, 뛰어들어”(을 2:7-9) ‘하늘을 떨게 하고 해와 달마저 캄캄케 하는’(을 2:10) 존재로 그려놓았다. 종말에 관한 이런 요엘의 생각은, 폴 헨슨(Paul Hanson)의 용어대로 하면, 원묵시(proto-apocalypse)에 해당된다.<sup>42)</sup> 요엘은 역사의 진보를 바라던 예언자적 종말론과는 달

40) Mariottini, "Beat your plowshares into swords", 126-127.

41) 홍성혁, *유태교*, 202-206.

42) Paul Hanson, *The Dawn of Apocalypse: The Historical and Sociological Roots of Jewish*



리 역사의 변혁을 기대한다. 그 변혁이 있기 전 하나님께 대드는 악한 세력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의 방식은 다름 아닌 전쟁이리라. 그 하나님의 전쟁이 역사 속에 돌진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해방되게 되리라!<sup>43)</sup>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이라는 요엘의 소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웨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종이 된다. 온 세상 나라에게 군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 보라고 선언하는 경고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포도밭의 농부들이나 허약한 사람들마저 군인으로 차출하여 용사의 숫자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각각 일터에서 하던 일손을 멈추고 농기구를 전쟁무기로 바꿔 든 채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보라는 것이다. 요엘 3장 10절(H 4:10)에 담긴 전쟁 이야기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곡”의 무리(겔 38:1-16)와 흡사하다.

요엘 3장 10절(H 4:10)의 이야기는 구약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 날”에 세상 사람들이 낫을 창으로 바꿔들어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 “낫”을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시리라는 기대는 신약으로도 이어진다. 요엘이 내세웠던 “낫”은 요한의 묵시록에서도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계 14:14-15, 18, 20; 비교, 막 4:29).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이라는 요엘의 경구가 구·신약중간기의 묵시사상을 거쳐 신약에 이르는 동안 “그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종말론적 경고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

*Apocalyptic Eschat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75). 예언자의 종말론이 묵시 종말론으로 변용되는 과정은 왕대일, 『묵시문학과 종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382-408을 보라.

43) 왕대일, 윗글 387.

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계 14:19-20).

## 6. 참고문헌

- 박경철, “12예언서 연구의 최근 동향”, 「한 권으로 읽는 구약성서」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0), 209-230.
- 마빈 A. 스위니, 「예언서」 (홍국평 옮김), 구약학입문시리즈 5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는 Sweeney, Marvin. *The Prophetic Literature, Interpreting Biblical Texts Series* (Nashville: Abingdon, 2005).
- 왕대일, 「묵시문학과 종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홍성혁, “요엘 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야훼의 시온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186-216.
- 최순진, “전쟁과 평화: ‘보습을 쳐서 칼을’ 아니면 ‘칼을 쳐서 보습을’: 이사야 2:1-5, 미가 4:1-5, 요엘 3:1-10의 성경적 해석”, 「제95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2014년 4월 25일, 대전신학대학교), 227-246.
- Bang, Seung Ho, “For Whom the Plowshares and Pruning Hooks Toil: A Tradition-historical Reading of Joel 4:10”, *Journal for the Study of Old Testament*, 39, no. 4 (2015), 489-512.
- Byargeon, Rick W., “The Relationship of Micah 4:1-3 and Isaiah 2:2-4: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Prophetic Message”,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46, no. 1 (2003), 6-26.
- Cook, Stephen L., *Prophecy and Apocalypticism: The Postexilic Social Setting* (Minneapolis: Fortress, 1995).

- Fischer, Irmtraud, "World Peace and 'Holy War' - Two Sides of the Same Theological Concept: 'YHWH as Sole Divine Power' (A Canonical-Intertextual Reading of Isaiah 2:1-5, Joel 4:9-21, and Micah 4:1-5)", Cohen, R.(ed.), *Isaiah's Vision of Peace in Biblical and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Swords into Plowshares* (New York: Macmillan, 2008), 151-165.
- Fishbane, M.,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
- Hanson, P., *The Dawn of Apocalypse: The Historical and Sociological Roots of Jewish Apocalyptic Eschat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75).
- Kaiser, Otto., *Isaiah 1-12*, Old Testament Library(rev.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1983).
- Kennedy, J. H., "Joel", *Broadman Bible Commentary* (Nashville: Broad Press, 1972).
- Mariottini, C. F., "Joel 3:10[H 4:10]: 'Beat your Plowshares into Swords'",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14 no. 2 (1987), 125-130.
- Stuart, Douglas, *Hosea-Jonah*, *Word Biblical Commentary* 31 (Texas, Waco: Word Books, 1987).
- Sweeney, Marvin., "The Book of Isaiah as Prophetic Torah", Melugin, Roy F. and Sweeney, M.(eds.), *New Visions of Isaiah, Journal for the Study of Old Testament Supplements* 21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6), 50-67.
- Wolff, Hans W., *Joel and Amos, Hermeneia- 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1977).

\_\_\_\_\_, "Swords into Plowshares: Misuse of a Word of Prophecy",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12 no 3 (1985), 133-147.

## 검색어

요엘서

전쟁신탁

메뚜기 떼 재앙

목시사상

보습을 쳐서 칼을

# Beat your Plowshares into Swords and your Pruning Hooks into Spears(Joel 3:10a[H 4:10a]) - An Exegetical Study of War-Oracle in Joel against the Vision of Peace in Isa 2:4a; Mi, 4:3a

Tai-il Wang, Ph.D

Professor of the Old Testamen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ed to study Joel 3:10a (H 4:10a), "Beat your plowshares into swords and your pruning hooks into spears," which takes a stand against the famous word of peace in Isaiah 2:4b and

[www.kci.go.kr](http://www.kci.go.kr)

Micah 4:3b,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In order to understand Joel 3:10a in its relation to disarmament phrases in Isaiah 2:4b and Micah 4:3b, this paper carries out form-critical and tradition-historical inquiries in order to discern the validity of Joel 3:10a in its literal, textual, historical, and compositional context.

Joel 3:10a is defined as a war oracle by its formal features and content. It shows an eschatological reversal of the hope for world peace spoken by Isaiah and Micah. Joel 3:10a with its literary block of Joel 3:9-13 points to its scribal setting in the latter half of the second Temple period.

The book of Joel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1:1-2:32 (H 3:5) and 3:1-21 (H 4:1-21). The first part depicts the prophetic warning that the day of Yahweh is coming, whereas the second delivers the prophetic vision that all the enemies of Judah will be judged on the day of Yahweh. The former is addressed in light of the disaster brought by locusts on Jerusalem, whereas the latter reveals the restoration of the people to Zion by Yahweh on the final day of history. Joel 3:9-13 in this structural sequence indicates that the announcement of preparing for a war is a substantial prerequisite for what will happen on the day of Yahweh in relation to the final judgment and the renewal of the whole world.

Joel 3:9-13 shows the structure that is formed with a concentric arrangement of a-b-c-d-x-d'-c'-b-a' sequence. The structure is associated with the notion that the conflict of the evil forces against God, taking place on the day of the eschaton, will end with their total destruction in the Valley of Jehoshaphat. This understanding

refers to the fact that Joel went on the track different from Isaiah who had declared an optimistic view on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Joel was also different from Micah whose prophetic word of disarmament provided a realistic view on the present survival of the kingdom of Judah. In the calamitous situation of his days Joel declared an eschatological upheaval of the day of Yahweh, because Isaiah's and Micah's expectations of peace were seen to be unfulfilled. For this purpose Joel went on the track of apocalyptic tendency using the well-known eschatological visions of pre-exilic prophets so as to adjust himself in the direction of the proto-apocalyptic thought.

### **Keywords**

The Book of Joel

War Oracle

Disaster of Locust

Apocalypticism

Beat Your Plowshares into Swords

■ 투고일: 2016년 10월 15일

■ 심사일: 2016년 10월 19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3일